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내가 결핵이라고?



글_김홍준(개그맨)

최근 대한결핵협회의 복심자의원으로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바로 SBS 웃찾사의 개그맨 김홍준이다. 입대 후 TV에서 잠시 비껴있었던 그가, 결핵으로 의가사 제대 후 병원을 찾은 것. 보통 결핵은 6개월이면 치료가 완료되지만 그는 초치료에 실패하여 현재 결핵 재치료를 받고 있다.

항상 팬들에게 웃음을 전달하던 그였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속앓이를 했다던 개그맨 김홍준, 그가 결핵치료 전 과정을 <보건세계>에 공개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홍준입니다. 우선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 제 얘기 먼저 시작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개그맨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나이에 길거리 공연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연소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을 해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3년도 SBS공채 7기로 입사를 하여 SBS 간판 개그프로그램 웃찾사의 '학년3반', '왕의남자', '그만해'로 얼굴을 알리고 조금씩 인기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를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에 자원입대를 하였고, 군 신체검사를 받던 도중



결핵이 의심되어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지요.

그때 제가 결핵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결핵이란 병이 옛날에나 있었던 병인 줄만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지요. 특별한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잘못된 진단이려니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감기도 잘 안 걸릴 정도로 몸이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결핵을 진단받았을 때에도 설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렸던 겁니다. 결핵이 어떤 병인지 별로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결핵에 걸렸다 해도 건강하니까 금방 치료될 것이라고 여겼고요.



어려서부터 꿈꾸었던 개그맨이 된 것은 꿈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남들보다 먼저 내 인생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너무나 큰 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것처럼 달콤한 상을 너무 일찍 맛보았던 것일까요? 그 달콤함 뒤에 감춰진 것들이 성인이 된 후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생활을 쭉 이어왔습니다.

방송 일이라는 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데다 계속되는 아이디어 회의, 공연 등으로 바빠서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훈련소에서 결핵 판정을 받고 의가사제대한 후에도 변함없이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치료 아닌 치료를 해오던 도중 병원에서 '결핵내성'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 몸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더군요. 결핵은 꼬박꼬박 약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낫는 병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정말 미치도록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